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18.(화) 11:00,
(지면) 2024. 6. 19.(수) 조간

배포 2024. 6. 18.(화) 06:00

우리 선박·선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 함께 힘 모은다

- 선박 해외재난 예방과 신속한 수습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6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 체계 강화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선박 사건사고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간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 피해 선박사고 발생 시 해외 사건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재난 수습을 총괄하고, 해양수산부가 선박과 선원 보호 및 선박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 홍해·아덴만 내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 소말리아·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피해* 등 외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양 기관 간 더욱 높은 수준의 협업이 요구된다.

* '24년 1분기 전 세계 해적 사건 33건 발생, 지난해 동기 대비 22%(27건) 증가

이에, 양 기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간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해외 선박사고 발생 시 각 기관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 체계를 소개하고, 해외 사건사고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연락체계(핫라인) 구축 및 해외재난 대응인력 인사교류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훈련에도 상호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월 13일 이루어진 민·관·군 해적대응 진압 훈련*에는 외교부가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며, 6월 말 카메룬 현지에서 개최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 청해부대(43진) 파병 전 해적 대응 역량 점검을 위한 해수부·해군 및 민간 참여 훈련

양 기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양 기관이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동,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해 양 기관 합동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서기관	임병준 (044-200-5892)
(공동)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책임자	과 장	강영미 (02-2100-8565)
		담당자	사무관	김한별 (02-2100-8567)

